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1), 1~10, 2005. 4.

제7차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적용과 운영의 실제*

박희두** · 강창숙*** · 이은진****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Management in the 7th Social Studies Curriculum*

Hui-Doo Park · Chang-Sook Kang*** · Eun-Jin Lee******

요약 : 학교와 교실 수업은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이자 사회과 교육의 목표가 실현되는 도달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이 학교와 교실에서 적용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연구는 충청북도에서 사회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된 응답지를 분석하는 설문 조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중학교 사회과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탐구활동과 이를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고차적 사고력 함양'의 목표가 교실 수업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교사들은, 교수-학습 과정이 학습자 중심의 탐구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수업은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사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수업을 위한 탐구활동은 대부분이 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활동 과정보다는 가정 학습 과제로 부여하거나 교사의 설명으로 정리해 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교사들은 학습자의 사고 기능이나 학습 기능 중심의 탐구활동이 학습자의 사고력 함양에 가장 적절한 방법임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평소 수업에서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적용과 운영의 문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며, 제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교원 확충이 가장 시급한 현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선택이나 학생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에 가장 많이 고려된 것은 학교의 교원 상황으로, 진정한 학생 선택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7차 사회과 교육과정, 탐구활동, 고차적 사고력 함양, 선택중심 교육과정, 학생 선택권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e application · management in the 7th social studies curriculum by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most important arguments in this stud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d the application problems of the 7th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middle school. The focus of this investigation is related to students' inquiry activities, higher order thinking. As the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there is no students' inquiry activities in the most social

* 본 연구는 2004학년도 서원대학교 특성화 과제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won University), hdpark@seowon.ac.kr

*** 충북대학교 부설중학교 교사(Teacher, Attached Middl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aia2004@hanafos.com

**** 충북대학교 부설고등학교 교사(Teacher, Attached High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iruka@hanmail.net

class, it is usually proposed students' homework or alternated teaching. The most social studies teachers are recognized the important of students' higher order thinking and thinking skill. It is not accomplished in the real social class, because the most teachers are not acquainted with the methods and strategies of students' higher order thinking improving.

Nex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d the management problems of the 7th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high school. The focus of this investigation is related to the selective-centered curriculum. As the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the students' selective right of school based curriculum seems not to reflect sufficiently the expectation and intention as suggested in the national curriculum. Th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achieve the actual realization of the students' selective right in the social studies, the national curriculum should allow schools to have more flexibility through the supplement of the social studies teachers.

Key words : 7th social studies curriculum, inquiry activities, higher order thinking, selective-centered curriculum, students' selective right

I. 서 론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은 과거 국가 교육과정의 획일적인 틀을 버리고,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향함으로써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고차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전의 교육과정들보다 그 구성이 혁신적인 사회과 교육과정도 어느 때보다 학습자의 능력과 요구를 강하게 반영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제7차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다. '학습자 중심'이란 한편으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의미한다(교육부, 1999). 사회과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인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탐구활동을 바탕으로 하며, 학습자의 능력과 요구에 따른 심화·보충 학습으로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고차적 사고력을 함양토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또한 제7차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은 첫째,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 시대의 사회 변화를 주도할 시민적 자질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둘째,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을 추구하며, 셋째, 시민성 함양 교과로서의 통합성과 사회 과학 교육의 계통성 간의 조화를 추구였다. 넷째로는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구현하고, 아울러 지구촌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구촌적 관점의 반영에 유의하였다. 이중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의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다.

학교와 교실 수업은 7차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이자 사회과 교육의 목표가 실현되는 도달점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과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학교와 교실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중학교 사회과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탐구활동과 이를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고차적 사고력 함양'의 목표가 교실 수업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적용과 운영의 문제를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과 운영의 문제는 2004년 12월 현재 충청북도에서 사회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된 응답지를 분석하는 설문 조사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II. 제7차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의 문제

1. 학습자 중심의 탐구 활동과 고차적 사고력 함양의 문제

제7차 교육과정은 이전의 교육과정들보다 그 구성이 혁신적이고,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학교교육 운영체제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과 '교과서의 질 향

상'을 통한 '교실 수업의 질 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10 종류의 검정 교과서들이 개발·보급되었다. 현행 중학교 사회교과서는 전체적인 구성이 단원별 완결형이며, 각 출판사별로 단원별 구성요소의 형태와 방식만 약간씩 다르게 조직되어 있지만, 그 구성체제는 대부분 학습자 활동 중심의 탐구모형이다(최병모·임화자, 2004).

이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상의 내용 제시 방식은 과거의 단원별 주제와 주제 요소의 제시에서 벗어나, 탐구활동 중심의 학습을 위해 교과 내용을 기본적 지식, 기능과 이의 습득을 위한 학습 활동을 결합한 성취 목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학습 내용을 성취 수준과 관련 학습 활동을 결합하여 제시한 것은, 내용을 가르쳐야 할 주제의 범위로 파악하기보다는 학습하여야 할 목표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반영한 것이다(교육부, 1999). 학습하여야 할 목표는 학습자의 탐구활동 기능으로 제시된다. 학습자는 활동 기능(사고 기능 혹은 학습 기능)을 중심으로 자기주도적인 탐구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고차적인 사고력을 함양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현장의 사회과 교사들이 이에 대한 개념적 정향조차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한 가지 사례로 현장 교사들의 교육과정 목표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한 연구에 의거하면, 사고 혹은 사고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현장에서 교사들이 인식하는 사고력 함양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김진국, 2004).

"사고력 함양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사고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하면서도 사고력을 함양시켜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만 시달리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의하여 제작된 교과서는 탐구활동 부분이 많아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해 보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과연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력이 함양될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교과 교육적 차원에서 고등사고능력이 강조되면서 사고력 함양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추상적으로 추구될 수 있거나 궁극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목적이나 목표로서 그 중요성만 강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강창숙·박승규, 2004).

무엇보다도 제7차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학습자 중심'이란 한편으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의미한다(교육부, 1999). 사회과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인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탐구활동을 바탕으로 하며, 학습자의 능력과 요구에 따른 심화·보충 학습으로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고차적 사고력을 함양토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탐구 활동과 사고력 목표의 현장 적용의 문제점

위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탐구활동과 이를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고차적 사고력 함양'의 목표가 교실 수업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문제를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실에서 탐구활동이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둘째,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고차적 사고력 함양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와 실제 수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양상은 어떠한가?

조사 방법은 2004년 12월 현재 충청북도에서 중학교 사회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된 97명의 응답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연령별, 성별 구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교실에서 탐구활동이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59.79%가 현행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을 가장 잘

표 1. 응답자의 연령별, 성별 구성

연령 \ 성별	남	여	계
30대	5	9	14
40대	33	33	66
50대	10	7	17
계	48(49.5%)	4948(50.5%)	97(100%)

나타내고 있는 것은 '탐구활동'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평소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교수-학습 과정은 대부분 교과 내용이었으며, 탐구활동을 중요하게 다루는 경우는 14명(14.43%)으로 매우 적었다(표 2).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탐구활동은 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탐구활동을 학습자의 활동 과정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39명(40.21%)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가정 학습 과제로 제시하거나 교사가 설명해 주는 등 교사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연령별, 성별 차이는 없었지만 50대 교사의 경우 가정 학습 과제로 부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표 3).

이와 같이 교사들은, 교수-학습 과정이 학습자 중심의 탐구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수업은 교과내용을 중요한 과정으로, 교사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구활동은 대부분이 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활동 과정보다는 가정 학습 과제로 부여하거나 교사의 설명으로 정리해 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

교사들이 탐구활동을 학습자의 수준별,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수에 비해 교과 내용의 비중이 과도(특히 1학년)하다는 것이었다. 즉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수업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밖에 사회과 교실의 확보로 교육과정에 적합한 환경 구성, 사회과를 암기교과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식, 학력 평가에 대한 부담, 교사들의 인식 부족 등을 그 이유로 응답했다.

두 번째,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탐구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고차적 사고력 함양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와 실제 수업에서 적용되는 양상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교사들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이 탐구활동 중심의 교수-학습의 목표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남교사들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 다음으로 '문제해결능력 함양'이 탐구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목표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여교사들은 '고차적 사고력의 함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서 성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표 4).

대부분의 교사(75명, 77.32%)가 '탐구활동'을 재구성할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교과 지식(내용)과 학습 방법보다는 학습자의 사고 기능이나 학습 기능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회과 수업에서 학습자의 사고력을 함양하는 방법으로는 학습자의 사고 기능(혹은 학습기능) 중심의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다(표 5).

평소 수업에서 학습자의 사고력 함양을 고려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항상 고려하고 실제로 적용한다.'는 3명(3.09%), '학습내용에 따라서 적절히 고려한다.'는 21명(21.65%), '중요성과 방법은 알고 있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거의 고려하지 못한다.'는 48명(49.48%),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표 2.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교수-학습 과정

연령 \ 문항	교과 내용	탐구 활동	심화 학습	재구성한 학습지	계
30대	10	1	·	3	14
40대	37	9	4	16	66
50대	11	4	2	·	17
계	58(59.8%)	14(14.4%)	6(6.2%)	19(19.6%)	97(100%)

표 3. 탐구활동을 진행하는 과정

문항 \ 연령	학습자 활동으로	교사가 설명함	가정 학습 과제로	계
30대	8	2	4	14
40대	29	21	16	66
50대	2	5	10	17
계	39(40.2%)	28(28.9%)	30(30.9%)	97(100%)

표 4. '탐구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목표

문항 \ 성별	수준별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	문제해결 능력 함양	고차적 사고력 함양	계
남	3	20	19	6	48
여	2	19	11	17	49
계	5(5.2%)	39(40.2%)	30(30.9%)	23(23.7%)	97(100%)

표 5. 학습자의 사고력 함양에 적절한 방법

문항 / 응답자	교과내용 중심으로	사고기능(학습 기능) 중심으로	특정 학습 모형이나 방법으로	특정 사고를 중심으로 반복 훈련	토의(토론) 학습으로	계
응답자	18(18.6%)	34(35.1%)	15(15.5%)	16(16.5%)	14(14.4%)	97(100%)

적용하지 못한다.'는 25명(25.77%)으로 각각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들은 학습자의 사고 기능이나 학습 기능 중심의 탐구활동이 학습자의 사고력 함양에 가장 적절한 방법임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평소 수업에서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교사들이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적용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모두 실제 수업에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표 5와 같이 사고력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다양하며, 최근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관점보다는 대부분이 전통적인 교과 지식 중심 교육관에 바탕을 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III. 제7차 고등학교 선택 중심 사회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의 문제

1.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교육 기간의 10학년과 선택 교육 기간의 11~12학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고등학교 1학년인 10학년에서는 9학년까지의 학습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보다 심화된 수준의 지식과 기능, 그리고 이들을 보다 높은 수준의 현실 문제에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제7차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은 첫째,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 시대의 사회 변화를 주도할 시민적 자질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둘째,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을 추구하며, 셋째, 시민성 함양 교과로서의 통합성과 사회 과학 교육의 계통성 간의 조화를 추구였다. 넷째로는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구현하고, 아울러 지구촌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구촌적 관점의 반영에 유의하였다. 이 중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의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의 내용에 나타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의 주체에 대해서는 교육청, 학교, 학생이 균등하게 참여하되,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인 학생이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선택 대상은 과정 선택과 교과 영역의 선택 또는 과목 선택으로 기술되어 있다.

셋째, 선택의 여지는 지역과 교육청, 학교의 실정이 좌우된다는 점이다.

넷째,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144단위)은 교과(136단위)와 특별활동(8단위)으로 편성하며, 보통교과의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일반선택과목은 교양 증진 및 실생활과 연관된 과목이며, 심화선택 과목은 학생의 진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11~12학년의 사회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는 사회과 관련 1개 과목의 일반 선택 과목과 9개 과목의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과목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일반 선택 과목이 갖는 편제상에서의 성격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학습을 정리하면서 심화 선택 과목의 학습을 위한 준비 교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일반 선택 과목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심화 선택 과목을 연결하는 과목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국민 공통 기본 교과별로 하나씩의 과목을 개설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과의 경우에는 '인간 사회와 환경' 과목이 이

표 6.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 중심 교육 과정 이수 과목 및 단위수

일반 선택 과목	인간 사회와 환경(4)
심화 선택 과목	한국 지리(8), 세계 지리(8), 경제 지리(6), 한국 근·현대사(8), 세계사(8), 법과 사회(6), 정치(8), 경제(6), 사회·문화(8)

같은 성격을 갖는 과목으로 개설되었다. 심화 선택 과목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대한 학습과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학습을 기초로 각 교과 영역별로 2~4 과목씩 심화 선택 과목을 두고 있다. 지리 영역의 경우에는 심화 선택 과목으로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과목이 개발되었으며, 역사 영역의 경우에는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과목이, 그리고 일반 사회 영역에서는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심화 선택 과목으로 개발되었다.

제7차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교에서의 적용에 있어서 현장 교사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았다. 따라서 그 불만의 내용과 적용에 있어서의 실제적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의 문제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2. 제7차 선택 중심 사회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의 문제

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중 사회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적용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사회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둘째, 학교에서 선택한 사회과 교과는 무엇인가?

셋째, 학교에서 선택 중심 사회과 교육과정의 교실 적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조사 방법은 2004년 12월 현재 충청북도에서 고등학교 사회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된 82명의 응답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연령별, 성별 구성은 표 7과 같다.

표 7. 고등학교 응답자의 연령별 · 성별 구성

연령 \ 성별	남	여	계
30대	8	12	20(24.4%)
40대	20	22	42(51.2%)
50대	16	4	20(24.4%)
계	44	38	82(100%)

1) 학교에서 사회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의 어려움

먼저 학교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학교 현실에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9명(59.8%)로 가장 많아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선택 과목만을 제시한 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8).

교육과정 편성 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52명(63.4%)이 교원 부족으로 응답해 학교 현장의 교원 확충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 더 충실한 교육과정의 운용을 위해서는 교실 확충(16명, 19.5%)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학교 선택 교과 선정 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학교 재직 교원 상황(49명, 59.8%)이었다. 즉 학교 재직 교원 상황이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생의 희망(28명, 34.1%)이 고려되었으나, 앞으로는 이 부분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표 10).

학생 선택 교과 선정 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학생 의견과 학교 현실을 고려하였다는 응답이 53명(64.6%)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학생 선택 교과 선정할 때에도 학교 실태만을 고려한 경우도 25명(30.9%)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이

표 9. 교육과정 편성의 어려움

문항 \ 응답자	교원 부족	교실 부족	학생들의 인식 부족	수능과의 괴리	계
응답자	52(63.4%)	16(19.5%)	12(14.6%)	2(2.4%)	82(100%)

표 10. 학교 선택 교과 선정 시 중점을 둔 사항

문항 \ 응답자	재직 교원 상황	학생의 희망	학부모의 희망	대입 제도와의 관련성	계
응답자	49(59.8%)	28(34.1%)	1(1.2%)	4(4.9%)	82(100%)

표 8.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문제점

문항 \ 응답자	편제와 편성의 곤란	학교 현실에 부적절	교원 구성과 괴리	대입 제도와 괴리	학생들의 기피	계
응답자	21(25.6%)	49(59.8%)	4(4.9%)	8(9.6%)	0	82(100%)

필요하다(표 11).

표 11. 학생 선택 교과 선정 시 중점을 둔 사항

문항 / 응답자	학생 의견만	학생의견, 교원 상황	학생과 학부모 의견	학교의 실태만	계
응답자	0	53(64.6%)	4(4.9%)	25(30.9%)	82(100%)

2) 학교에서 선택한 사회과 교과와 교육과정의 편성

학교에서 지정한 사회과 교과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한국지리(56명, 23.3%), 한국 근·현대사(44명, 18.3%), 윤리, 정치(각 32명, 13.3%) 순으로 나타나 일반사회, 역사, 지리, 윤리가 고르게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지리는 한 학교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표 12는 복수로 응답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학생이 선택한 사회과 교과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한국지리(21.3%), 한국 근·현대사(11.6%), 사회문화(11.6%)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세계지리, 정치, 경제(9.7%), 그리고 윤리와 세계사(7.7%), 국사(5.8%) 법과 사회(3.9%)로 나타나 비교적 고르게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계열 학생들이 선택한 사회과 교과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사회문화(22.7%), 한국지리(20.2%), 한국 근·현대사(20.2%), 윤리(13.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연 계열에서는 사회과 교과를 대입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업 진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지리과 과목 중에서는 한국지리를 선택한 경우가 68%로 가장 많았고, 세계지리는 32.0%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지리는 선택한 학교가 없었다. 응답자 중 지리 과목을 하나만 선택한 학교가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학교 재직하고 있는 사회과 교사의 수급 관계가 가장 많았고, 다른 사회과 교과와의 형평성, 교육과정 편성의 곤란함 등이 주요 이유였다. 앞으로 지리 과목을 늘린 다면 어떤 과목을 늘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경제지리가 월등히 많았다.

3) 선택 중심 사회과 교육과정의 교실 적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큰 것은 과목 선택형(36명, 43.9%)이고, 그 다음은 단계형(29명, 35.4%)과 심화 보충형(17명, 2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 수업 전개 시 어려운 점으로는 대학 입시에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우려하는 응답이 38명(44.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학능력시험에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응답이 34명(39.5%)로 나타나 모두 고등학교 교육의 비정상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교과만을 선택해서 학습함으로 나타나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의 편파성을 우려하는 응답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표 13).

학교 현장에서 평가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지적 능력의 편파성을 우려하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인 운영과 함께 선택하지 않는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무

표 12. 학교에서 지정한 사회과 교과목

교과목 / 응답자	윤 리	국 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근 현대사	세계사	정 치	경 제	법과 사회	사회 문화	계
응 답 자	32 (13.3%)	28 (11.7%)	56 (23.3%)	16 (6.7%)	0	44 (18.3%)	12 (5.0%)	32 (13.3%)	4 (1.7%)	8 (3.3%)	8 (3.3%)	240 (100%)

표 13. 수업 전개 시 나타나는 문제점

문항 / 응답자	대입과 무관함으로 인한 무관심	수능 개인 선택 과목 이외의 무관심	수능 비선택 학생의 관리 문제	선택 과목 편중으로 인한 지적 능력의 편파성	계
응답자	38(44.2%)	7(8.1%)	34(39.5%)	7(8.1%)	82(100%)

표 14. 평가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

문항 / 응답자	계열간 평가의 불균형 문제	선택·비선택 학생간의 불균형 문제	이수 단위의 불균형 문제	지적 능력의 편파성	계
응답자	17(20.7%)	29(35.4%)	4(4.9%)	32(39.1%)	82(100%)

관심으로 한정된 과목만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정기고사 등의 평가에 있어서 선택한 학생과 비 선택 학생과의 격차가 커지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표 14).

제7차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으로는 교육청·학교의 지정 선택 과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 현장에서 학생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대학입학 시험에 타 계열의 과목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30.5%로 나타나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들이 입시에 전 교과를 반영하든지, 아니면 타계열의 일부 교과라도 반영해야만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기타 의견으로 교실 증개축과 교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7차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알아봄으로써 교육과정 적용 및 운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제7차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탐구활동과 이를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고차적 사고력 함양'의 목표가 교실 수업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문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교수-학습 과정이 학습자 중심의 탐구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수업은 교과내용을 중요한 과정으로, 교사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구활동은 대부분이 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활동 과정보다는 가정 학습 과제로 부여하거나 교사의 설명으로 정리해 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 교사들이 탐구활동을 학습자의 수준별,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수에 비해 교과 내용의 비중이 과도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교사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구성에서 시수의 조정, 필수 교육과정 요소의 획기적인 재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들은 학습자의 사고 기능이나 학습 기능 중심의 탐구활동이 학습자의 사고력 함양에 가장 적절한 방법임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평소 수업에서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력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최근의 통합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관점보다는 대부분이 전통적인 교과 지식 중심 교육관에 바탕을 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학습자의 고차적 사고력 함양에 대한 교사들의 올바른 이해와 그를 바탕으로 한 교실 수업에서의 적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과교육의 차원에서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에서 정확하고 올바르게 진술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교사들은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탐구활동과 이를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고차적 사고력 함양이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이자, 교실 수업의 핵심적 과제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부터 개념적 정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교사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 적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실 수업에서의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모든 것이 교사들의 부담과 노력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적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며, 제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교원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학교 선택이나 학생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에 모두 가장 많이 고려된 것은 학교의 교원 상황으로 학생 선택에 있어서 진정한 교육과정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고등학교에서 선택하고 있는 교과는 대체로 일반사회, 역사, 지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자연계열이나 실업 계열에서 선택하고 있는 사회과 교과는 수능 시험과의 무관함으로 인해 수업 전개 및 정기 평가에 있어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리 교과는 한국지리의 선택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세계지리는 그 다음이었으며 경제지리는 응답자 중에는 한 학교도 없었고, 교과서 판매로 본 상황에서도 한 학교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 파악은 후에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리 과목 중 한 개 교과만을 선택한 이유로는 사회과 교사의 수급 관계와 사회과 교과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선택 폭 확대에 따른 전문 교사 확보의 문제이다. 선택 과목 수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다양한 수요에 따른 교원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수준별 교육 과정과 함께 학생 중심 선택이라는 취지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편중적인 과목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해 초 되풀이되는 대학 입시 개선 방안에서 소위 일류대라고 대학의 자체 입시 방안에서 언급된 과목에 대해 거의 선택 과목을 결정짓고 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 교육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선택 과목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일부 선택 과목의 교사에겐 전문성에 심한 위기의식을 갖게 하여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과밀 학급 속에서 다양한 학생의 인성을 폭넓게 수용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즉 개혁의 핵심을 학생에 두고 있다고 표방하면서도 정작 그 중심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나아가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혼선을 제거해 주는 진정한 교육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창숙, 2004, “세계적 이슈-중심의 지리 탐구 학습”, 지리과교육, 6,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47-162.

강창숙 · 박승규, 2004, “지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기능의 상세화”, 한국지역지리학회, 10(3), 579-591.

교육부, 1999,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Ⅱ): 국어, 도덕, 사회.

교육부, 1998,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별책 4].

교육부, 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4, 사회, 교육부 고시 1997-15호.

김경혜, 2001,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관의 심리학적 고찰”, 사회과 교육, 34, 347-365.

김시연, 2002, “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발문분석: 중학교 1학년 사회교 과서 동양사 부분을 중심으로”, 이화교육논총, 12, 237-248.

김용찬, 2000, “21세기와 교육과정의 지역화: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33, 223-244.

김진국, 2004, “교사들이 인식한 지리과 교육과정 목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1), 45-60.

노희방, 1997,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지리 영역 개발 보고: ‘제7차 지리 교육과정 개 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의견“, 지리 · 환경교육, 5(2), 143-150.

우종현 · 박순호, 2002, “사회과 지리 영역 교육과정 구성의 문제점과 그 대안적 접근: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논총, 18(2),

대구교육대학 초등교육연구소, 41-63.
이춘수, 2002,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정치 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 연구", 교육연구논총, 23(3),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133-162.
이혁규, 2000,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대한 문화 기술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3(3), 89-139.
최병모, 2000,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방안", 사회과교육학연구, 4, 1-36.
최병모 · 임화자, 2004,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교원교육, 19(2),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63-92.
허 작, 2003, "중학교 일반사회 교육내용의 보편성 · 특수성 분석", 교육발전, 22(2), 서원대학교 교육연구소, 1-20.
현동희, 2002,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집 디자인 분석 및 개선방향", 기초조형학연구, 3(1), 한국기초조형학회, 53-65.

최초투고일 2005. 02. 20.
최종접수일 2005. 03. 21.

교신 : 박희두, 361-74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hdpark@seowon.ac.kr, 043-299-8380)
Correspondence : Hui-Doo Park, hdpark@seowon.ac.kr